



[산업] 연내 100번 소통 첫걸음 댄 최태원 SK 회장 04

metro[®]



Economy

코스피	2075.57 (0.00)	코스닥	686.33 (0.00)
금리 (미국 3년)	1.80 (+0.01)	환율 (원-달러)	1116.40 (-1.90) (11일)

애플 앞마당서 '갤S10' 언팩행사 삼성, 혁신아이콘 세대교체 선언

(2월 20일 예상)

혁신 없는 애플 추락 현실화 아이폰 생산 10% 추가감축 자사모델 이례적 할인판매

삼성, 美 샌프란시스코서 新 모델 '갤 S10' 공개 예고 원UI 등 혁신기능 대거 탑재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19' 한글 옥외광고를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Place de la Concorde)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애플이 IT 업계 혁신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스티브 잡스 사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온 반면, 경쟁사들이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이미 뒤쳐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애플의 빈 자리는 삼성전자가 채울 전망이다. 굳이 애플의 앞마당에서 신형 모델 출시를 발표하면서 혁신 세대 교체체를 공개 선언하는 모습이다.

◆애플, 항복선언 초읽기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쇼핑 물들은 최근 들어 아이폰 가격을 10~20%까지 낮춰서 판매하고 있다. 애플이 도매 가격을 인하해 주겠다고 통지한 데 따른 조치다. 할인 모델은 구형뿐 아니라 최근 출시한 XS 맥스 등 신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지난 달 국내에서도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최대 50만원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할인 판매를 시도한 바 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애플이 자사 모델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출시된 지 1년도 안된 모델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에 충격적이



삼성전자는 원UI를 통해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이 과격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실적 쇼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애플은 이달 초 미국 회계 1분기(2018년 9월~11월) 매출 전망치를 840억 달러로 기존 예상보다 10%나 줄였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3월까지 아이폰 생산량을 10% 더 줄인 상태다. 이에 따른 예상 생산량은 4000만대 수준으로, 판매

량은 전년(5220만대)보다 25% 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별다른 혁신을 보이지 못했으면서도, 고가정책을 유지한 탓에 소비자 마음을 잃게 됐다고 보고 있다. 아이폰 신형인 XS 맥스 가격은 2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 그러나 실제 기능은 구형 모델인 아이폰 X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안정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iOS도 잇따라 오류로 신뢰를 잃고 있다.

앞으로도 애플의 혁신은 보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모델에서야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으로 내세운 AR 기술도 경쟁사들에 비해 특별하지 않은 모습이다.

◆삼성, '원UI'로 새 시대 열까

이처럼 애플 추락이 현실화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다음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형 모델인 갤럭시 S10 언팩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폴더블 폰도 이날 함께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발표 장소가 애플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월 25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에서 신형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신제품을 통해 '혁신 브랜드' 세대 교체를 선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직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S10 정보는 전무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협력업체 등에서 유출된 정보 등을 토대로 갤럭시 S10 혁신 내용을 추정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으로 예상된다. 전면 베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전면 카메라를 상단 구석에 몰아넣어 개방성을 극대화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탑재다. 아이폰 '노치' 디자인보다 훨씬 작은 영역을 카메라로 활용한 디자인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설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13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는 먹거리를 찾는 시민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 CEO, CES서 전방위 협력

脫 통신 빨라진다

SKT-美 방송사 합작사 설립 LGU+는 구글과 콘텐츠 제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9'에서 전방위 협력을 벌이며 탈(脫)통신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무선 사업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차, 미디어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다.



1월 7일(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Wynn) 호텔에서 SK텔레콤-싱글레어 간 합작회사 설립 관련 협약식에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 크리스토퍼 리플리(Christopher S. Ripley) 싱글레어 방송 그룹 CEO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1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글레어 방송그룹과 모바일 방송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구글과 가상현실(VR) 콘텐츠 공동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

CES에 출격한 이동통신사 최고 경영자(CEO)들이 첨단 제품의 데뷔 무대로 꼽히는 무대에서 경영 구상의 밑그림을 그리고 온 셈이다. 가전쇼인 CES는 5G 통신을 기반으로 자동차, 통신 등 업종을 뛰어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CES에 참가해 자율주행기술, 실감 미디어 등을 선보이는 한편, 박정호 사장이 세 번째로 출장에 나서기도 했다.

가장 큰 성과는 미국 방송사 싱글레어 방송 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차세대 방송 솔루션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양사는 총 3300만 달러를 투자해 공동 경영에 나서고 합작회사는 1·4분기

내 출범 예정이다.

미디어뿐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에도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기어 하만과 싱글레어 방송 그룹과 차량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으로 자사의 미디어 기술과 데이터 송·수신 기술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는 방송망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ATSC 3.0 기반 차량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를 대비해 구글과 VR 콘텐츠 공동 제작에 합의하고, 5G 스마트폰 상용화 시점에 맞춰 VR 전용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CES에서 밝혔다.

<3면에 계속>

/김민인 기자 silkni@

文, 경제행보 가속... 내일 대·중견기업인 만난다

15일 청와대 초청·간담회 박용만 상의회장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번주(15일)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 만남에는 깊이 있는 질문·답변이 오고 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모습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7일)중소·벤처기업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질문이 쏟아졌다.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었다. 당시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서면으로 기업인들 질문을 받아 추후에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당장 15일 예정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이 제안을 적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즉 15일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의 만남은 '사전에 서면질문을 받고 그 질문지를 한

권의 질문집으로 제작', '만남 후 모든 질문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가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대변인은 "15일 행사는 사전 질문집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질문에도 과감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3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